강의 주제

고대 한국어의 음운

- 1. 자음체계
- 2. 모음체계

학습목표

고대 한국어의 자모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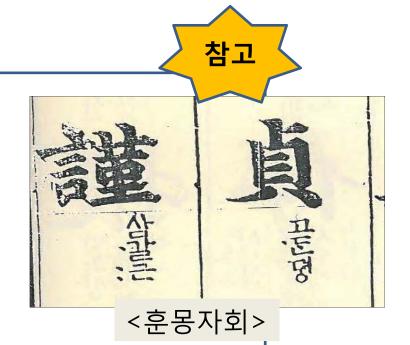
조음위치 조음방법	입술	잇몸	여린 입천장
파열음	р	t	k
마찰음		S	X
유 음		l	
비 음	m	n	ŋ

특징

1) 파찰음 /ts/계열이 존재하지 않음

■ 'ㅈ'계 초성은 'ㅅ'계와 'ㄷ'계 초성의 한자와 호용됨

吉士 或云 吉次<삼국사기> 仇史郡 古之屈自郡<삼국유사> 至留縣 一云 知留<삼국사기



■ 'ㅈ' 초성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 'ㅣ' 모음이나 'j'계열의 상향 이중모음 앞에 오는 'ㄷ'이 구개음화한 결과 발달한 것으로 추정

특징

2) 유기음 계열이 존재하지 않음

- 유기음의 발달은 자음의 연접관계를 통하여 순음, 설음 계열에서 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
- cf) 유기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의 근거 居柒夫 或云 荒宗<삼국사기>

특징

- 3) 경음 계열이 존재하지 않음
 - 조선 한자음의 성모에도 경음이 존재하지 않음
 - 예 시(氏), 솽/상(雙), 긱(喫)
 - 중세한국어 이후 마찰음의 불파음화에 의한 경음 형성 가능성이 추정됨
 - ⑩ 주걋긔<용비어천가>, 아자바님내끠<석보상절>

특징

- 4) 중세한국어 'ㅎ'에 대응하는 자음은 연구개 마찰음 /x/을 것
 - 'ㅎ' 초성의 한자와 '¬' 초성의 한자가 자주 호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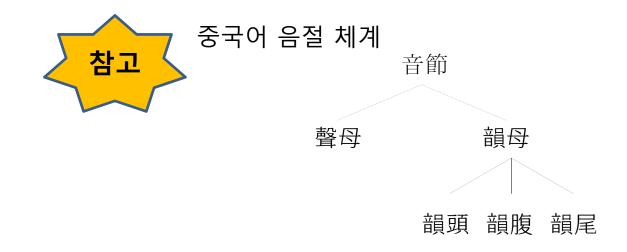
伊伐飡 或云 伊罰干 ~ 舒發翰 或云 舒弗邯<삼국사기> 漢城郡 一云 漢忽<삼국사기> 辟城縣 本 辟骨<삼국사기>

cf) 유기음이 평음과 'ㅎ'의 결합에 의해서 음운화된 것임을 고려할 때 'ㅎ'의 존재가 고대 한국어 시기에 음소로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음

특징

5) **/ŋ/은 종성에만 사용됨**

■ 중고 및 상고시대의 중국 한자음에서 '疑'자모 계열에 속하는 연구 개 비음의 /ŋ/과 '影'자모 계열에 속하는 후두 폐쇄음은 고대국어 한자음 체계에 다 같이 零聲母의 'ㅇ'으로 반영됨



특징

- 6) 쇼과 병이 존재하지 않음
 - △에 대응하는 '日' 자모는 고대 국어 한자음 체계에 'ㄴ'/n/로 반영되고, 방에 대응하는 '非' 자모는 순중음 'ㅂ'으로 반영됨.

日谿縣 本 熱兮縣 或云 泥兮<삼국사기>



중국 36 자모표

	牙音	舌頭	舌上	脣重	脣輕	齒頭	正齒	喉音	半舌	半齒
全淸	見	端	知	幇帛	非	精	照	影		
次淸	溪	透	徹	滂	敷	清	穿	曉		
全濁	群	定	澄	並	奉	從	牀	匣		
不淸不濁	疑	泥	孃	明	微			喩	來	В
全淸						心	審			
全濁						邪	禪			

특징

- 7. 유음 'ㄹ'의 음가
 - 초성은 탄설음 [r], 종성은 설측음 [l]
 - → 차자표기의 '尸'와 '乙'이 각각 [r]와 [l]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 하는 견해
 - 음운론적인 구분 표기라기보다는 형태론적인 구분 표기로 보는 견해도 있음



- 다음 차자표기 용례를 통해 추정되는 현상은?
 - 1) 骨正 一作忽爭<삼국사기>
 - 2) 未鄒尼叱今 一作 未炤 又未祖 又未召<삼국유사>

연구방법 개관

- 고대 한국어의 모음체계를 재구해 내기 매우 어려움
 - 차자표기 상의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용 양상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기 때문
 - ⑨ 轉音借: 伋甫 古作伋巴<세종실록 지리> 層夫婁城 本肖利巴利忽<삼국사기>
 - 巴의 古音은 '바'로 '보, 부'로 전음차됨
- ◎ 중세한국어의 모음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자표기 연구
- 중고 이후의 중국한자음이 한글로 표기된 자료 검토

[i]	→[ü-u]	⊥[u-o]		
	—[i-ə]	[g-c] ·		
	-][ε-æ]	} [a-α]		

<김무림 2004:79>

특징

- 1) 단모음은 대체로 7모음 체계로 추정
- 2) 전설과 후설로 대립되는 구개적 조화를 이룸
 - 중세 한자음의 'ㅏ' 는 주로 중국 한자음 [α, a] 등에 'ㅓ' 는 주로 중국 한자음 [e, ε, æ] 등에 대응
 - 차자표기에서 'ㅏ'와 'ㅓ' 모음의 호용 예
 - → 고대의 'ㅓ'가 전설모음 /ä/에 가까운 모음이었음을 보여줌

伐休 一作 發暉<삼국사기>

특징

- '•'는 후설모음으로 분류되지만 이에 대응하는 중국한자음이 상고시대의 중설모음 /ə/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중설모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추정됨
- 차자표기에서의 '•'와 '--' 모음의 대립 예

民焉 빅셩운<안민가> 主隱 니리믄<서동요>

특징

- 'ㅗ'와 'ㅜ' 모음의 호용 예
 - → 'ㅗ'가 원순 후설모음인 /u/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보여줌

味鄒尼師今 一云 味照<삼국사기> 我道 又 阿頭<삼국유사>

■ 중세 한자음 'ㅜ'가 중국 한자음 [ju, əu, wə, u]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의 'ㅜ' 는 전설모음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

특징

- 중세 한자음 ' | '는 고대 중국 한자음 [i, je]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중세와 마찬가지로 전설모음으로 추정
- 3) 상향 이중모음을 만드는 반모음 /y/(또는 /j/)가 존재했었음
 - 阿也<제망매가>, 阿耶<찬기파랑가>
 - 加羅/伽落<삼국사기>, 駕洛<삼국유사> → 加耶<삼국사기>, 伽耶<삼국유사>

ㄹ탈락 후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한 반모음 /y/의 개입 결과로 해석됨



• 현대 한국어의 단모음(10모음)체계를 모음 사각도로 나타내고 고대 한국어의 단모음체계와 비교, 대조해 보라.